

1. 들어가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의 시기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 학자, 여행가, 외교관 등이 ‘은둔의 나라’ 한국에 대한 소개서를 출판하기 시작했고, 이 책들¹을 통하여 한국이라는 미지의 나라가 서양 세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왕한석 1998: 3). 그렇다면 서구에서 한국을 인지하기 시작한 근대 시기의 교과서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1900년대 영국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의 모습을 통하여 당시 한국에 대한 영국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근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매체인 신문과 잡지² 대신, 교과서를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문 및 잡지와 비교해 볼 때, 교과서는 매우 다른 매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와 달리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Fish 1980; 김영훈 2010: 9 재인용), 이는 비대면적인 관계에서 텍스트는 독자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대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그 자체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매우 공식적이며 표준적인 해석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문과 잡지 등 그 밖의 인쇄 매체와 달리 근대적 지식 확산에 있어 구별되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김영훈 2010: 9).

따라서 근대 시기 영국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은 서구

¹ Ernst J. Oppert, G.P.Putnam's Sons, A Forbidden Land: Voyage to the Corea, 신복룡, 장우영 역(2000), 금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Herace N. Allen(1908), Fleming H. Revell Co., Things Korea, 신복룡 역(1986), 조선견문기, 서울: 평민사; Homer B. Hulbert(1906), William Heinemann Co., The Passing of Korea, 신복룡 역(1986), 대한제국 멸망사, 서울: 평민사; Isabella Bird Bishop, Fleming H. Revell Co., Korea and Her Neighbors, 신복룡 역(2000), 조선과 그 이웃나라, 서울: 집문당; James S. Gale(1909), Jennings & Graham, Korea in Transition, 신복룡 외 역(1986), 전환기의 조선, 서울: 평민사; Lillias H. Underwood(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 or Life in Korea, 신복룡, 최수근 역(1999), 상투의 나라, 서울: 집문당; Rev. George W. Gilmore(1892),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Korea from its Capital, 신복룡 역(1999), 서울풍물지, 서울: 집문당

² 이에 대해서는 Benedict Anderson(1991)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나아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분석 대상 교과서

	서명	출판연도	출판사	저자
1	A Text-Book of Geography	1913	Edward Arnold	A.W.Andrews, F.R.G.S., F.R.S.G.S
2	A Text-Book of Geography	1917	University Tutorial Press	G. Cecil FRY
3	ASIA: Rational and Suggestive TEXT-Book & Geography	연도미상		Hilda M. Bradley

여기서 살펴볼 교과서는 영국의 지리교과서 세 권으로, 두 권은 1913년과 1917년에 영국에서 출판되었고, 나머지 한 권은 출판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과서이다³. 세 권의 영국 교과서에서 한국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이 언급된 근대 영국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2.1. 『A Text-Book of Geography』(1913)

『A Text-Book of Geography』은 1913년 런던에서 출판된 책으로 미국의 코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다. 이 책은 표지, 속표지, 서문, 목차, 본문 서술 내용, 그리고 그림, 지도, 도표로 구성되나, 시각 자료 중 사진은 없다. 서문에서는 이 책은 기후연구와 지도를 사용함에 있어 특히 주목할만하며, 지리 정보에 대한 백과사전식의 축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보다, 각국의 지역적 기술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³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사진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사진 중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부부가 찍은 사진이 한국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언더우드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였던 시기는 1859-1916년(언더우드 선교사), 1951-1921년(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으로 언더우드부부가 찍은 사진 또한 이 시기 한국의 모습으로 추정가능하다. 게다가 이 책의 뒷 표지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도서대출 목록일자를 살펴보면, 이 책은 1936년에 처음으로 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900년대 초반에 출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밝히고 있다. 각 대륙과 기후문제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 대한 연습문제가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통계표의 형태로 자료가 제공되었다. 이 책은 학생들이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지리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기술된다. 모든 도표는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지만, 텍스트의 특정 내용까지 모두 지도와 도표를 통하여 소개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도와 도표를 그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특징이 있다.

<p>Part 1 일반지리 땅의 형태 땅의 움직임 풍화작용 복원 해류 지도와 지도 읽기 대규모의 등고선 지도 사용 기후 온도 습도 기압 생물지리학 식물분포 동물분포 인간분포 몇몇 중요한 경제 산물</p> <p>Part 2 지역 지리 영국제도 유럽 아시아 대륙들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p> <p><『A Text-Book of Geography』(1913)의 목차></p>	<p>Chapter 1 수리지리 Chapter 2 대기와 순환 Chapter 3 대양과 바다 Chapter 4 날씨와 기후 Chapter 5 지각 Chapter 6 유럽 Chapter 7 영국제도 Chapter 8 영국과 웨일즈 Chapter 9 스코틀랜드 Chapter 10 아일랜드 Chapter 11 발트해의 국가들 Chapter 12 중앙유럽 Chapter 13 남부유럽 Chapter 14 북아메리카·서인도제도·중앙아메리카·멕시코 Chapter 15 미국과 캐나다 Chapter 16 남아메리카 Chapter 17 아프리카 Chapter 18 아시아 Chapter 19 오세아니아 Chapter 20 영국제국과 영국의 상업으로</p> <p><『A Text-Book of Geography』(1917)의 목차></p>
--	--

『A Text-Book of Geography』(1913)는 일반지리와 지역지리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지리에서는 지형(땅의 형태)과 기후 그리고 생물지리를 중심으로 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지리에서는 전세계를 대륙별로 구분하고 설명한다. 지역을 나눌 때, 전체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대륙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다른 대륙과 동일하게 영국제도를 따로 구분하고 영국과 유럽을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한국은 단독으로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으나, ‘일본제국’ 중 하나로 소개된다-일본제국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일본제도, 한국, 포르모사로 기술되고 있다-. 한국의 면적은 86,000평방마일, 인구는 1300만명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한국은 1910년에 일본에 병합된 지역으로 서술된다. ‘한국의 지형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르막이 있는 산이 많은 반도이고, 6,000피트에서 8,000피트의 깎아지른 듯한 해안은 일본해로 쪽으로 뻗어있다. 충분한 저지대가 있으며 특히 서쪽 평야에 쌀과 곡류를 기르기 위한 수도인 서울이 위치해 있다. 목가적인 생활(pastoral pursuits)은 일본보다 더 중요시되었다. 일본의 철도는 지금 만주에서 항구인 부산과 연결이 된다. 겐산(Gensan)은 동쪽의 주요 항구이다.’

아시아 지역의 지형을 기술할 때 ‘한국’, 아시아의 인종을 설명할 때 ‘한국인’이 언급된다. 이외에 한국관련 서술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열도’의 지형을 설명한 부분이다. 일본은 지형적으로 쌀 또는 기타 곡물을 경작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농지와 목축지는 일본이 팽창하는데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서술된다. 이는 오늘날 영국 교과서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에 대해 서술한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교과서에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일본 국내의 경제문제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이것 역시 일본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다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과 별개로 일본군의 독단적인 행위로 발생했다’고 서술된다(McCabe 2009: 38). 근대 영국의 지리교과서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일본의 열악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것임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영국의 교과서에서 한반도와 만주 침략이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2.2 『A Text-Book of Geography』(1917)

『A Text-Book of Geography』 또한 앞의 책과 마찬가지로 1917년 런던에서 출판된 책이며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표지, 속표지, 서문, 목차, 본문 서술 내용, 그리고 그림, 지도, 도표로 구성되나, 시각 자료 중 사진은 없다. 서문에서 ‘이 책은 초보자나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며, 중등 후기 과정의 학생들이 런던의 대학 입학에 위해 쓰여진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수리지리, 대기와 순환, 대양과 바다, 날씨와 기후, 지각, 유럽, 영국제도,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발트해의 국가들, 중앙유럽, 남부유럽, 북아메리카·서인도제도·중앙아메리카·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영국제국과 영국의 상업으로 20개의 장

으로 구성된다. 목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와 대륙이 수평적이고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는데 이는 수리지리를 비롯하여 대기와 순환, 대양과 바다 등과 같은 지리 개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소개된다. 이 책에서 한국은 단독으로 구분되어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을 묘사할 때, 지명 등과 같이 보조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언급된 ‘한국(Korea)’만으로 한국이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인지하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지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지역의 지형을 소개한 부분에서 한국은 ‘산악 지대인 한반도’, ‘같은 온도의 지역을 기술할 때 32도의 등온선인 지역은 흑해, 카스피해, 황하강 유역의 중간지점과 한국’이 언급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인종을 설명할 때 ‘중국, 한국, 일본, 인도차이나, 터키에서 지배적인 인종은 몽골리안이거나 황인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나가사키의 지리적 위치를 기술할 때, 대한해협이 언급된다.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한 부분으로 분류되고 ‘한국’이라는 단어로 제시되고 있으나, 당시 영국의 중등과정에서 대학진학을 위해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3. 『ASIA: Rational and Suggestive TEXT-Book & Geography』(연도미상)

『ASIA: Rational and Suggestive TEXT-Book & Geography』은 17년 리즈에서 출판된 초등과 중등과정 학생용 책이며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표지, 속표지, 본문 서술 내용, 그리고 지도와 사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문과 목차는 없으며 사진 자료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아시아 지역의 지형과 만주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할 때 한국이 언급되고 있으며, 한국은 단독으로 구분되어 기술되고 있으며 당시 한국의 사진 2장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의 지리적 특징과 기후, 그리고 생산품과 정부형태, 교통수단, 산업, 인구나 종교, 도시 등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황해와 일본해 사이에 위치하며 만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져 나온 반도이다. 한국은 최고의 항구를 가진 가파르고 들쭉날쭉하고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산이 많으며, 많은 강이 있지만, 한강을 제외하고 항해하기에 유속이 매우 빠르다. 빠른 유속에도 불구하고 강은 상거래의 주요한 도로이며, 서울로 증기선에 의하여 배가 다닐 수 있다. 서울은 이탈리아와 동일한 위도에 있으나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덥다. 온도는 화씨 100도에서 0도 사이이다. 일반적으로 강들은 (겨울철) 세 달 동안 언다. 토양은 매우 비옥하며, 매년 2-4 종류의 작물을 수확한다. 관개는 단지 벼농사를 위해 필요로 한다. 가장 주요한 농산물은 쌀, 밀, 옥수수, 수수, 그리고 콩이다. 인삼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며 수익의 큰 원천이다. 면화는 1905년 이래로 일본에 의하여 많이 재배되었다. 광물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금, 석탄, 철, 방연석과 구리가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 중국 그리고 만주에 의한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중국의 지배/대군주의 지위overlordship 때문에 명목상이긴 했으나) 최근까지 독립을 유지했다.’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했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2년 후 일본은 한국의 모든 행정 사항을 일본의 승인 하에 두었고 1910년 공식적으로 한국을 합병하였다. 한국의 황제는 퇴위되었고 왕자로 격하되었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13개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의 이름은 조선으로 바뀌었다. 교통수단에는 결함이 있었으나 일본인 관리가 행정을 장악한 후,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 철도는 일본 정부 하에서 놓여졌다. 하나는 서울에서부터 한국의 동남쪽 항구인 부산으로 놓여졌다. 그리고 서쪽으로 향하는 짧은 철도인 서울에서 제물포로 놓여졌다. 서울의 철도는 중국의 주요 항구인 의주(Wiju)로 북서쪽으로 뻗어나갔다. 이 도시에 위치한 압록강은 교량역할을 하였고, 결국 서울이 만주철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중국과 시베리아열차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농업과 가축사육에 종사하고 있다. 쌀, 콩, 인삼, 소가죽과 소는 주요한 수출품이다. 한국은 매우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안은 어업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에 의하여 전적으로 관리된다. 인구는 1300만명이고, 한국인들은 주로 몽골리안이지만, 백인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의 인종은 황색과 옅은 색으로 섞여 있고 그들 중에는 신기하게도 영국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류층은 유교적인 도덕과 종교를 고수한다. 조상숭배는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있고 절이 많다. 한국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동의 현장이며, 많은 개종자가 있다. (한국의 주요 도시로는 서울, 제물포, 그리고 부산, 세 지역을 소개한다.) 서울은 한강 근처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수도이다. 그리고 완전히 현대화되고 있었다. 전차가 거리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고 도시변두리 지역으로 이어진다. 한 종류의 영국의 신문과 두 종류의 한국의 신문이 매일 발행된다. 일본인 집단은 150,000명의 인구 중 5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물포는 조약에 의하여 개항된 항구로 러일전쟁이 시작된 현장이다. 부산 또한 조약에 의하여 개항된 항구로 일본의 맞은편에 위치하며 나가사키로부터 16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사진1> 한국에서 짐을 나르는 동물의 행렬

<사진2> 서울의 교외지역

아시아 지역만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의 특징상, 한국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특히 한국인의 인종적 특징을 서술할 때 백인의 특성이 섞여 있으며 영국인과의 유사성 또한 언급한 내용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앞의 두 권의 교과서에서 한국의 인종을 단순히 몽골리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한국인의 인종적 특징은 한국인을 직접 만나서 관찰한 사실을 토대로 서술하였거나, 개항이후 한국에 들어온 서양의 선교사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집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 또한 한국에서 거주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2장의 사진, 하나는 한국에서 짐을 나르는 동물의 행렬 <사진1>이며, 다른 하나는 서울의 교외지역<사진2>이다. <사진 1>에서 짐을 나르는 동물의 행렬 옆으로 전차길이 있으며 이 전차는 서울의 교외지역<사진 2>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본문의 서술을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사진1>과 <사진2>는 본문 서술과 함께,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현대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시의 형성과 근대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3. 영국 근대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특징

이 시기 영국 지리 교과서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어떤 지역으로 또는 일본의 식민지 중 하나로 소개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아시아만을 다룬 지리교과서에서 한국은 다른 교과서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Text-Book of Geography』(1913)에서 한국은 일본에 병합된 지역 중 하나로 포르모사와 함께 소개된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인구, 면적, 지형과 일본과의 관계가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한국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기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한국 관련 내용 앞부분에 일본을 서술한 부분에서 일본의 열악한 토양 환경은 경작지로 적합하지 않았고 일본이 평창하는데 한국의 농경지와 목축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기술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A Text-Book of Geography』(1917)에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한 부분으로 위치지어진다. 당시 영국의 지리교과서는 세계를 물리적인 환경과 지리적인 특징으로 크게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 대륙과 국가를 소개할 때 한국은 아시아 지역 중 일부로 나타난다. 본문 내용 서술에서 있어서, 지리를 활용한 인간의 활동을 주목하기 보다는 지형적 특징 즉, 대륙, 해안, 온도, 그리고 인종적 특징과 같은 백과사전식 지리정보에 초점을 맞

추어 서술한다. 따라서 한국 또한 특정 지역의 어떤 국가로 소개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서술 속에 특정 지명 또는 지역 중의 하나로 간략하게 언급된다.

『ASIA: Rational and Suggestive TEXT-Book & Geography』에서 한국은 앞의 두 책과 달리 한국 관련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될 뿐만 아니라 사진자료 또한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아시아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한국의 지리 정보를 다양하게 소개하였다는 특징이 이외에도 당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가급적 배제한 서술이 주목할만하다. ‘한국은 일본, 중국, 만주 등 주변국들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최근까지 독립을 유지했다’는 서술을 통하여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 의하여 철도가 놓여지는 등 근대화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동시에 서울은 현대화된 도시로 전차가 서울의 주변지역까지 이어지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짐을 나르는 가축들의 행렬을 찍은 사진 자료를 통하여 문물의 교류와 근대적 변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서술은 개항기에 한국에 들어온 서양인들의 견문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했던 근대 시기, 선교사 등의 견문록 또한 타국을 이해하는 주요 자료로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⁴

4. 맺음말

이 글에서 살펴본 근대 시기 영국에서 발행된 영국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은 일관된 특정 시각을 견지하기보다는 당시 한국을 인식하는 다양한 견해가 교과서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살펴본 교과서에서도 다른 대륙과 지역을 영국과 대등하게 구성하여 서술하는 등 자국중심적인 경향이 농후하며 자국민의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교과서라는 점에서 교과서라는 특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의 교과서 또한 제국주의 침략을 희석하거나 정당화하는 서술이 발견되며, 제국주의 침략을 선도했던 일본을 포함한 서구 중심주의적인 서술이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교과서의 목차와 같은 내용 구성,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⁴ 비숍의 저서 (신복룡 역)『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의 서문에서 비숍은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 사이의 4차례에 걸친 조선의 방문은, 몽골 인종의 중요한 특성에 관한 나의 연구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비숍 2000: 14)’라고 밝히고 있다. 비숍은 ‘1892년 여자로서 처음으로 영국지리학회(Royal Geographic Society)의 회원이 되었음(이광린 1991: 121)’을 상기한다면, 이 책은 여행기라기보다는 연구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왕한석 1998: 8-11) 당시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주요한 문헌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목차를 구성하고 있으며 하위 개념으로 해당 국가들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근대 시기 한국의 개항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미지의 지역이었던 한국의 실체에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서양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는 한국을 식민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각을 차용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한국에 서양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선교사 및 여행가 등 다양한 서양인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찰된 내용이 서구 현지에서 발행되어 읽혀지기 시작하였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보다 다양한 매체와 정보는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며, 근대 그리고 타자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통일성있게 형성되기 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정보가 교과서 내용으로 담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훈(2010), 개항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 *비교문화연구*, 16(2). 5-30.
- 왕한석(1998), 개항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 3-33.
- 이광린(1991), '비숍'여사의 여행기. *진단학보*, 71·71. 119-132.
- Anderson Benedict(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New York: Verso, 윤형숙 역(2004),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 McCabe, Jim 외(2009). *AQA GCSE History B International Relations: Conflict and peace in the 20th Century*. Cheltenham: Nelson Thornes.
- Ernst J. Oppert, G.P.Putnam's Sons, *A Forbidden Land: Voyage to the Corea*, 신복룡, 장우영 역(2000), *금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 Herace N. Allen(1908), Fleming H. Revell Co., *Things Korea*, 신복룡 역(1986), *조선견문기*, 서울: 평민사.
- Homer B. Hulbert(1906), William Heinemann Co., *The Passing of Korea*, 신복룡 역(1986), *대한제국 멸망사*, 서울: 평민사.
- Isabella Bird Bishop, Fleming H. Revell Co., *Korea and Her Neighbors*, 신복룡 역(2000), *조선과 그 이웃나라*, 서울: 집문당.
- James S. Gale(1909), Jennings & Graham, *Korea in Transition*, 신복룡 외 역(1986), *전환기의 조선*, 서울: 평민사.
- Lee, Benjamin and Edward Lipuma(2002). *Cultures of Circulation: The Imaginations of Modernity*. *Public Culture* 14(1), 191-213.
- Lillias H. Underwood(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 or Life in Korea*, 신복룡, 최수근 역(1999), *상투의 나라*, 서울: 집문당.
- Rev. George W. Gilmore(1892),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Korea from its Capital*, 신복룡 역(1999), *서울풍물지*, 서울: 집문당